

과거·현재·미래가 공존 파리는 건축으로 진화중



내년이면 첫 삽을 뜬지 850년이 되는 노트르담 성당은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파리시는 이를 기념해 올해 12월12일부터 내년 11월24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파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4〉
파리와 건축물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전세계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삼성과 애플의 법정 소송전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뉴스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들 두 기업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법정을 벗어나 파리 시내 한 복판에서도 재연됐다. 지난 해 5월 파리 시내 센스 강변의 유명 관광지인 콩시에주리 외벽에 설치된 대형 공사 가림막에 당시 애플의 신상품 아이패드 2의 광고가 내걸렸다. 포스터의 크기는 무려 140㎡였다. 수시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노를 달고 투브르 박물관, 라틴 지구의 중간쯤에, 파리를 통파하는 모든 국철이 지나가는 샤프레 지역의 강 건너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의 광고 효과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것이다.

수백년 古城서 삼성-애플 광고대결

삼성의 반격은 역시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의 프랑스 출시에 맞춰 6월 9일 이뤄졌다. 같은 장소에 같은 크기의 대형 광고가 설치됐다. 그런데 같은 포스터를 크기만 키워 설치했던 애플과 방식은 달랐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태블릿 PC 안에 넣은 그림이 선보였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는 12일 동안 예술가들이 직접 두 대의 곤돌라에 올라 수작업으로 그린 후에야 완성됐다. 그 광경을 본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은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작업이 끝난 뒤 그 공금증은 풀렸고, 이 모든 과정은 비디오에 담겨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다. 적어도 센스 강변의 광고전(戰)에서는 삼성의 완승이었다. 수백 년 된 이 고성에 거대 기업이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006년 개정된 문화재 관련 법률 때문이다. 문화재 보수를 위해 설치된 공사 가림막의 최대 50%를 상업광고에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콩시에주리의 광고단가는 월 20만 유로(약 3억원)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로 계획된 콩시에주리 보수 공사의 총 비용은 230만 유로(약 33억원)다.

관련법 바뀐 보수비 재정 충당

법률 개정 이전에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와 같은 크기의 그림 또는 사진이 내걸렸다. 1년 넘게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허다한데, 이 시기에 해당 건축물을 찾은 관광객은 실제 건물을 보지 못하고 건물과 같은 모습의 대형 사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광고판이나 실물 크기의 건축물 사진이나 실망스럽긴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프랑스가 문화재 관리 보수에 쏟는 돈은 연간 4억 유로(약 5조8000억원)에 달한다. 파리시(市)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재 가림막 광고의 크기를 16 광방미터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다. 아무리 자존심 센 프랑스인들이라 해도 그리스 사태 등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할 우려가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화재급 수만 곳... 한해 보수비 6조

조그만 공공재 하나에도 나름의 미적 기준을 제시하는 프랑스인들이 스스로의 얼굴과도 같은 문화재에 대형 상업광고를 허용했다가 다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이 사실 자체로 천문학적 비용과 공공성 사이에서 겪는 프랑스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달리 보면 프랑스인들이 문화재 특히 건축물의 관리와 보수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가 문화재는 콩시에르주를 비롯해 파리에 9곳, 전국에 100여곳이다. 정부의 직접 관리는 아니지만, 일정한 보조를 받는 문화재급 건축물들은 수만 곳에 달한다. 프랑스의 건축물들이 적게는 100년에서 많게는 1천 년 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돌을 이용한 석조건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는 주변에 산이 없어 지하의 석회암 층을 파내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파리 지하의 채석 작업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생긴 파리 지하의 공간은 하수로나 무덤 등으로 이용됐다. 파리의 지하터널 총길이가 300km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노트르담 성당부터 라데팡스까지

파리를 특징짓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은 대개 강력한 왕권 하에 건설된 궁이나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이 주를 이룬다. 파리의 기원인 시테섬에 위치한 콩시에주리는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로 기능할 무렵인 10세기에서 왕실이 루브르 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약 500년간 왕의 주요 거처로 사용됐다. 중세시대 프랑스의 국가체제 기틀을 마련한 카페 왕조의 필립 오귀스트가 이곳을 거처했다. 루브르를 짓도록 지시한 것도 필립 오귀스트였다. 이후 법원과 감옥 등 행정적인 기능의 공공기관으로 이용되다 혁명 당시 반혁명 인사들을 가둔 감옥으로 악명을 떨쳤다. 삼성이 광고에서 활용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로 향하기 전 지냈던 수용실은 지금도 방문이 가능하다. 현재의 건물은 18세기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다시 태어났다.

파리의 주요 건축물로 시테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을 빼놓을 수 없다. 12세기 건설된 대표적인 고딕 건축양식으로 꼽힌다. 건축기간만 200년(1163~1345)에 가깝다. 내년은 노트르담 대성당 건축을 위해 첫 삽을 뜬지 850년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 12월12일부터 내년 11월24일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도시 곳곳에 웅장하고 화려한 수백 년 된 건축물들이 널려 있다. 그러나 눈 여겨봐야 할 것은 프랑스인들이 건축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다. 이는, 관리 보수에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들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주변과의 조화는커녕 다소 엉뚱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 주체나 건축가의 철학과 시대를 앞서는 첨단 기술, 독특한 디자인 등에 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더해지면서 새로운 전설이 ‘탄생’된다.

독특한 디자인에 이야기 더해 ‘가치’

대표적인 것이 에펠탑이다. 지금은 100년 넘는 고건축에 속하지만 에펠탑 건축 당시인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간단치 않은 것이었다. 기 드 모파상 등 문인과 예술가들은 연방을 돌려 반대했다. 노트르담과 루브르, 개신교인 있는 아름다운 고도시에 흉물스런 철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현대의 에펠탑은 파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 됐다.

1989년 건설된 투브르 박물관 중정의 유리 피라미드도 에펠탑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에펠탑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투브르 피라미드가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이 기획됐던 것도 비슷한 점이다. 중국계 미국인 이오밍 페이가 설계한 유리 피라미드 역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금은 명소로 자리잡았다.

구 도심인 포부르가(街)의 상징으로 떠오른 콩피두 센터, 유럽 최대의 비즈니스 센터인 라데팡스 지구 등 수많은 현대 건축물들이 후대에 회자될 전설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센스 강변의 콩시에주리 외벽 공사 가림막에 설치된 애플의 신상품 아이패드 2 광고.



삼성 갤럭시 탭 프랑스 출시에 맞춰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를 넣은 삼성 광고.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jeong@gmail.com

